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경상남도 창원군 비봉리에서 출토된 (가) 시대 배의 복제품입니다. 본래의 출토품은 약 8천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배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가) 시대 사람들은 낚시바늘과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았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습니다.



-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 ②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③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보관하였다.
-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⑤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 찌개 등을 제작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사람들은 돌보습과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낚, 뼈낚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원형의 움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같은 씨족의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달리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족장이 농사,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하였다.

① 고려 시대에 들어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② 철기 시대에 이르러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으며, 명도전(연), 반량전(진), 오수전(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며 중국과 교역하였다.

④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고인돌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축조되었기에 계급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⑤ 편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는 초기에는 만능도구인 찌개나 주먹도끼를 주로 쓰다가 후기에는 이음도구를 이용한 슝베찌르개를 사용하였다.

정답: ③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신석기 시대 유적(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가 널리 사용되어 음식을 저장하였다.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지린 성 라오허선 유적에서 출토된 (가)의 황금 귀고리이다. 이 나라에서는 금이 많이 산출되고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치장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 (가)은/는 장성 북쪽에 있었던 나라로,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주관하는 사출도가 있었다.

- ①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소도라고 불린 신성 지역이 존재하였다.
-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금 8조를 두었다.

정답: ①

* 초기국가 부여에 대하여

고조선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국가이고, 가장 북쪽인 만주 지방에 자리하였던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② 옥저는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삼한에서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④ 동예는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⑤ 고조선은 범금 8조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는데 오늘날 3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3.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②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 ③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 ④ 낙랑과 왜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 ⑤ 만장일치제인 화백 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정답: ④

* 금관 가야에 대하여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서 국가조직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에 가야는 연맹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대성동 고분)가,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지산동 고분)가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가야는 전신인 변한 시대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400)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이 붕괴되었다.

이후 가야 연맹은 지역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세력다툼을 위한 전장이 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신라에 의해 모두 복속되었다(532년 금관가야 멸망, 562년 대가야 멸망)

① 동에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② 백제 멸망 후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1천 척 중 400여 척이 불태워지는 큰 패배를 당하여 쫓겨갔다(663).

③ 고구려는 지방 5부를 단위로 하는 대성(大城)에는 육살(도독에 비견), 그 다음 규모의 성(城)에는 처려근지(도사, 자사에 비견)를 파견하였다.

⑤ 신라는 귀족 대표들이 모인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제[百濟]를 토벌하였다. …… 백제가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정병(精兵)을 보내 그 도성에 육박하였다. …… 이에 백제왕[殘主]이 ……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나) 고구려의 대로 제우, 재증걸루, 고이만년 등이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 안이 위험에 빠지고 개로왕이 도망하여 나갔다. 고구려 장수 재증걸루 등이 왕을 보고 …… 그 죄를 책망하며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

- ①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 ②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 ③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 ④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 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⑤

* 396년~475년 사이의 역사적 사실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391~412)은 영락 6년(396)년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 때 노복(奴僕)이 되겠다고 맹세한 백제는 영락 10년(400) 왜를 끌어들이어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 내물왕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 이로써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발전을 도우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을 붕괴시키는 등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부왕인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계승하여 장수왕(413~491)은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워 그 업적을 기리었고(414), 영토가 넓어지자, 다시 안으로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껴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였는데(나제동맹: 433년). 고구려의 침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백제였다. 장수왕은 3만의 군대를 보내 백제를 쳐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475). 이 때의 고구려 영토는 아산만에서 소백 산맥을 넘어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에까지 미쳤다.

① 백제 의자왕(641~660)이 즉위하면서부터 신라와의 싸움이 보다 격렬해져 642년 요충지인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② 압록강 하류에서 요동으로 나아가는 요지인 서안평(현 중국 단동)을 고구려 태조왕·차대왕(146), 동천왕(224) 등이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미천왕 때에 점령하였다(311).

③ 백제 웅진 시기의 동성왕(479~501) 때부터 백제는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왕은 신라 소지왕과 동맹을 강화하여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결혼동맹, 493).

④ 백제 성왕(523~554)은 중흥을 위해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으며,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551). 그러나 곧 진흥왕에게 한강 유역을 모두 빼앗기자(553) 이를 응징하려 가다가 관산성(충북 옥천)에서 전사하였다(554).

5.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중앙군으로 9서당이 편성되었다.
- ②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가 확장되었다.
- ③ 지방관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 ④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변경되었다.
- ⑤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정답: ②

* 신라 진흥왕의 업적

신라는 진흥왕(540~576)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576),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흥왕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특히,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항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북한산, 창녕, 마운령, 황초령)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하여 거칠부를 시켜 역사서인 국사(545)를 편찬케 하였으나 전하지 않고 있다.

① 통일 신라기 중앙군의 핵심인 9서당은 진평왕 때부터 창설되기 시작하여 문무왕(681~692)은 민족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백제(백금·청금 서당)와 고구려(황금서당)의 유민 및 말갈(흑금 서당)과 보덕국민(적금·벽금 서당)도 9서당에 편성하였다.

③ 문무왕 때부터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주(州)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673).

④ 내물왕(356~402) 때에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⑤ 신라는 지증왕 때부터 시장 감독 기구로 동시전(509)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6.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중대성이 일본국 태정관에게 보내는 칙(牒)

귀국에 가서 알현할 사신 정당성 좌윤 하복연과 그 일행 105명을 파견합니다. 일본 땅은 동쪽으로 멀리 있고, 요양(遼陽)은 서쪽으로 멀리 있으니, 양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만 리나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 ①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 ②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 ④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⑤ 내신 좌평, 위사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 중대성, 정당성, 일본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발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 당의 영향을 받아 3성(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6부(총.인.의.지.예.신-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으나 명칭이 달랐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과 우사정이 각각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중정대, 서적 관리를 맡은 문적원, 중앙의 최고 유교 교육기관인 주자감 등이 있었다.

발해의 지방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다.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두었고, 지방행정의 중심에는 15부를 두었다.

① 태조왕(53~146) 때에 고구려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동)옥저를 정복하였다(56).

② 고려 광종은 광덕(950)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다가 중국의 후주가 건국되자(951)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며 통교하였고,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다가 후주를 계승한 송이 건국되자(960), 외교관계를 맺고(962) 이후로는 송의 연호를 사용하였다(963).

④ 통일 후 신라는 지방세력 통제를 위해 각 주(州)의 관리 중 1명을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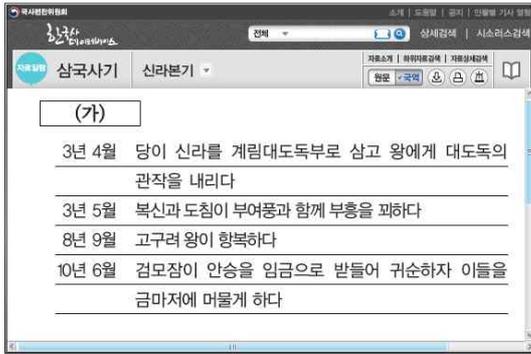
⑤ 백제는 고이왕(234~286)은 6좌평제(내신.내두.내법.위사.조정.병관)와 관등제(16관등)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형성하였다(260).

정답: ③

* 발해에 대하여

7.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②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③ 매소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 ④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 ⑤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정답: ③

* 문무왕의 업적

무열왕(654~661) 김춘추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어 그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자(642) 고구려와 동맹하여 백제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감금당하고 탈출하여 나당동맹을 성사 시켰다(648).

나당동맹군은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으나 이듬해 무열왕이 죽고, 아들 문무왕(661~681)이 계승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또한 복신, 도침 등의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고(663), 당의 한반도 전체의 지배를 막고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였다(안승의 보덕국 설립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매소성(675)과 기벌포(676)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당군을 대동강 이남에서 몰아내며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① 성덕왕(702~737) 때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22)

② 지증왕(500~514) 때에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역사에 포함되었다(512).

④ 신문왕(681~692)은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⑤ 원성왕(780~798) 때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8.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은/는 마한의 족속이다. …… 도성을 고마(固麻)라 하였다. 읍(邑)을 일컬어 탐로라 하였는데, 중국의 군현과 같았다. 22담로를 두었는데, (왕의) 자제와 종족을 보내 다스렸다.

-「양직공도」-



정답: ③

* 백제의 문화유산

- 백제 웅진 시기의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무령왕릉은 1971년에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의 다른 무덤과는 달리, 완전한 형태로 빛을 보게 되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려 주는 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다.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관 장식, 귀고리, 팔찌 등 3000여 점의 썬물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족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 ① 길림 돈화 육정산 고분 정혜공주묘 앞 돌사자상(발해)
- ② 의령 출토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고구려)
- ③ 공주 송산리 고분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금제관식(백제)
- ④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대가야)
- ⑤ 경주 천마총 출토 천마도 장니(障泥:배가리개) (신라)

9.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2018년도 하계 한국사 강좌)

인물로 보는 신라 불교사

우리 학회에서는 신라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 불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좌 주제 ◆

제1강 원광	(가)
제2강 자장	(나)
제3강 원효	(다)
제4강 의상	(라)
제5강 도선	(마)

• 기간: 2018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박물관 대강당

• 주최: △△학회

- ① (가) - 풍수지리설을 들여오다
- ② (나) -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하다
- ③ (다) -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다
- ④ (라) - 세속 오계를 제시하다
- ⑤ (마) - 대승기신론서를 저술하다

정답: ②

* 신라 불교사의 주요 인물

원광(541~630): 새로운 불교 지식을 신라에 보급한 업적이 큰 승려이다. 그가 지은 세속 오계는 이후 화랑도의 중심이념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608년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대응하고자 수나라에 구원군을 요청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결사표).

자장(590~658): 신라 선덕여왕 때에 당에서 귀국하여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하였다. 백제 장인 아버지를 초빙하여 목탑이 지어졌으나(643~645), 몽골의 3차 침입 때(1238)에 에 타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원효(617~686):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대승기신론서, 금강삼매경론 저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고자 불교의 여러 이론(異論)을 10문으로 정리한 '십문화쟁론'을 지어 화쟁(和諍)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625~702):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귀국하여 신라의 화엄종을 창설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영주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도선(827~898):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 지리적 학설로서,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방 호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① 신라 말 사색과 실천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종을 말에 도입한 공식적인 최초의 승려는 도의 선사로 알려져 있다(821). 선종 9산 중 가지산파를 개창하였다(장흥 보림사).

1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② 광평성 등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③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애꾸눈으로 유명한 궁예(?~918)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해 농민층의 기반을 갖고 있던 궁예는 기회에 투신하였으나, 곧 양질의 휘하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복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토대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 -> 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으로서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예는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① 후백제(900)를 세운 견훤은 중국과의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월과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후당이나 거란과도 외교관계를 통해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 하였다.

③ 936년 일리천(경북 선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견훤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④ 고려를 세운 태조(918~943) 왕건은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⑤ 신라말 흥덕왕(826~836) 대에 장보고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11.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왕이) 선정전 남문에 거둥하여 (사신) 요불과 사현 등 6인을 집견하고 입조한 연유를 묻자 요불 등이 아뢰기를, “..... 만약 9성을 되돌려주어 우리의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늘에 맹세하여 지손대대에 이르기까지 공물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와 조각 하나라도 국경에 던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왕이) 선정전 남문에 거둥하여 요불 등을 접견하고 9성의 반환을 허락하자, 요불이 감격하여 울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 『고려사』 -

1019	1104	1232	1270	1356	1380
(가)	(나)	(다)	(라)	(마)	
귀주대첩	별무반조직	처인성전투	개경환도	쌍성총관부탈환	진포대첩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동북 9성이 반환된 시기(1109)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1104, 신기.신보.항마군)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그러나 여진족이 잃은 땅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는데다 방비하기도 어려워 9성을 돌려주었다(1109). 이후 여진족은 이후 더욱 세력을 키워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으며,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나,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1126).

12.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한국사 대입 신채호의 역사 인식

단체 신채호 선생은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대 제일 대사건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생은 이 사건을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으로 보아, 전자가 패하고 후자가 승리하면서 우리 역사가 시대적, 보수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 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하였다.
- ② 왕실의 외적인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 ③ 묘청 일파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토벌되었다.
- ④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 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하였다.

정답: ③

* 묘청의 서경천도운동(1135)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개경파)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 관리들(서경파)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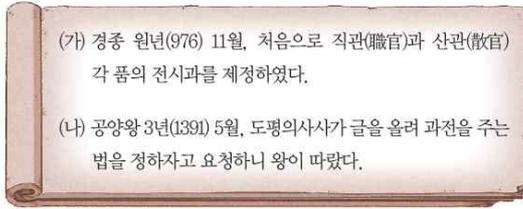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 사상과 시대적 유교 정치 사상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서경파)과 신라 계승 이념(개경파) 간의 갈등 등이 얽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난의 결과 복진 정책은 중단되고 서경파는 몰락하였으며, 제2의 수도로 각광받던 서경은 반역의 도시로 찍히어 분사(分司)제도가 폐지되고 이 곳 출신은 차별받게 되었다.

훗날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조선사연구초(1929)에서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일대 사건으로 파악하였는데, 자주적인 서경파의 몰락을 안타까와 하였다.

- ① 위화도 회군(1388)
- ② 이자겸의 난(1126)
- ④ 조위총의 난(1174~1176)
- ⑤ 강조의 정변(1009)

13. (가), (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 ㄱ. (가) -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여 수취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다.
 - ㄴ. (가) - 관리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양전을 지급하였다.
 - ㄷ. (나) -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 ㄹ. (나) -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고려의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

(가) **전시과**: 고려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땃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따라서 전국의 공·사전 토지가 대상이고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수조권자의 중복을 막음)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976. 시정 전시과, 인품과 4색 공복 관품을 기준으로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8, 개정 전시과, 18품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1076, 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

(나) **과전법**: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 후기 이래로 누적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과전은 직·산관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유력자의 토지 탈점을 막기 위하여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토지 부족으로 태종 때인 1417년에 과전으로 지급될 땅 1/3을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로 이급하였다가, 세월의 감소와 식량부족으로 세종 때인 1431년 하삼도 사전을 다시 경기도로 이환하게 하였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에도 수조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1556).

14.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그림은 고려의 제31대 왕과 그 왕비인 노국 대장 공주의 영정입니다. 이 왕은 원·명 교체기에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 ① 국자감을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다.
- ②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군을 창설하였다.
- ③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방을 폐지하였다.
- ④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⑤ 전국에 12목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③

* 공민왕의 업적

공민왕(1351~1374)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1356).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1352).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복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1370).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인사권 기구인 정방을 폐지하였다(1352). 또한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인인 노국공주가 죽은(1365) 뒤로 지나친 슬픔으로 정사에 흥미를 잃고 이를 승려 출신 신돈에게 맡기었다. 신돈은全民 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1371),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 ① 고려 예종(1105~1122) 때에 관학(국자감) 진흥을 위하여 무학재를 포함한 전문 강좌인 7재를 설치하였다(1109).
- ② 고려 정종(945~949) 때에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여 특수 부대인 광군을 편성하였다(947)
- ④ 광종(949~975)은 중국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제(958)를 처음 시행하였다
- ⑤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건의(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전국에 12목을 처음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15.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문화유산 카드

(가)

- 종목: 국보 제48-1호
-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 소개: 고려 전기의 석탑으로 당시 불교 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전체적인 비례와 조각 수법이 착실하여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정답: ①

*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시대의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각 다층탑이 많았고, 안정감(균형미)은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었다. 석탑의 몸체를 받치는 받침이 보편화되었다. 고려 전기 탑으로는 개성 현화사 7층 석탑과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유명하다.

그 중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소재한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국보 48호)이 그 전형을 보여준다. 즉 당시 송나라의 선진 문물이 수용되며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탑 앞에 공양하는 석조 보살 좌상이 있다.

② **경천사지 10층 석탑**: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탑인 고려 후기의 탑으로 원의 석탑을 본떴으며 조선 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졌다. 3단으로 된 기단은 위에서 보면 아(亞)자 모양이고, 그 위로 올려진 10층의 높은 탑신 역시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아(亞)자 모양이었다가, 4층에 이르러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탑의 1층 몸돌에 1348년(충목왕 4년

③ **다보탑(국보 20호)**: 8세기 중엽 통일신라기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탑으로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④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익산에 소재한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의 대표적 석탑(부여 소재).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⑤ **안동 신세동 7층 전탑(국보 16호)**: 원형이 보존된 한국 최고(最古)의 전탑(벽돌탑)이다(8세기). 분황사의 탑은 모전석탑(벽돌 모양 흉내)이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습니다.
- ② 요세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 결사를 이끌었습니다.
- ③ 지눌이 정혜사를 결성하고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④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저술하여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습니다.
- ⑤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여 불교 중심의 설화, 야사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답: ②

* 요세의 백련결사

고려 후기 지눌(1158~1210)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1163~1245)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토호의 후원 아래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 역시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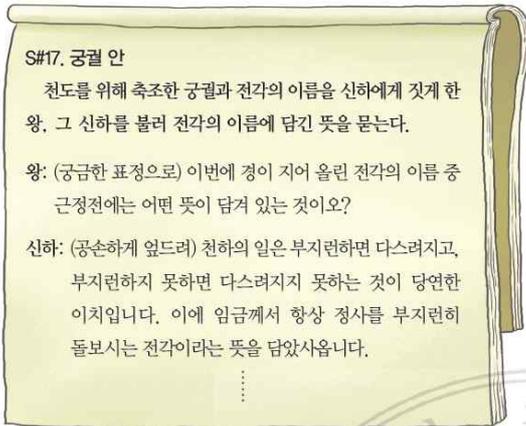
① 고려 중기 의천(1055~1101)은 교관겸수(교종과 선종을 겸하여 수행)를 부르짖으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③ 무신정변(1170) 이후 또다시 불교가 혼맥상을 보이자, 지눌(1158~1210)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정혜사(->수선사)를 결성하였다

④ 고려 후기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1215)은 삼국 시대 이래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⑤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17.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이 설치되었다.
- ②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③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하여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 ④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 ⑤ 궁궐의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정답: ②

* 조선 태조 재위 기간 중의 역사적 사실

고려 말 공민왕, 우왕 때에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성계(1335~1388)는 최영(1316~1388)과 함께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또한 이 둘은 함께 권문세족의 대표인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였다(1388).

그러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마침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4불가론을 주장하며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급진 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이후 1394년 하륜, 정도전 등의 건의에 따라 한양 천도를 단행하였다(1394). 이 때에 최대의 개국공신인 정도전(1342~1398)이 각종 전각의 이름을 짓는 등 큰 활약을 하였으며 그는 재상 중심의 통치를 표방하며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와 요동 정벌을 빌미로 왕자들의 사병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던 5째 아들 이방원(태종)이 정도전과 그가 후원하던 세자 방석을 제거하는 1차 왕자의 난(1398)을 일으키며 실권을 장악하자, 충격에 빠진 태조는 2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선위하였다.

① 세종(1418~1450)은 궁중에 집현전을 설치하고(1420) 재주 있는 젊은 학자들을 모아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③ 세조(1455~1468)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인 호패를 착용케 하는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④ 성종(1469~1494)은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기 위해 <국조오례의>를 편찬·완성하였다(1474).

⑤ 고종(1863~1907) 때에 흥선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상평통보 100배의 명목가치인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1866).

1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어요.
- ②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혜민국이 있었어요.
- ③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보급하였어요.
- ④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해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두었어요.
- 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어요.

정답: ③

* 고려의 사회정책

고려 시대의 농민은 조세, 잡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을 졌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 안정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위하여 여러 사회 정책을 펼쳤다.

고려의 사회제도로는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하며 태조 때의 흑창을 계승한 제도였다.

또,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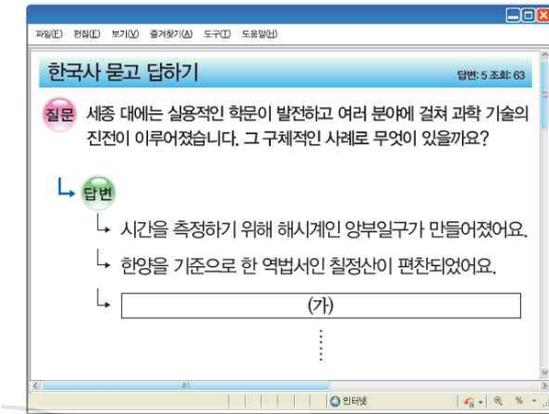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하게 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③ 조선 시대에는 중종 때(1554)에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초근목피 등으로 흉년 기근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개량된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주조되었어요.
- ② 폭탄의 일종인 비격진천뢰가 만들어졌어요.
- ③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가 설계되었어요.
- ④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되었어요.
- ⑤ 사상 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이 편찬되었어요.

정답: ①

* 세종 대의 과학기술 발전

세종(1418~1450)은 농업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1429, 정초.변효문).

또한,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구를 발명, 제작하였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혼천의)와 간의(간소환된 혼천의, 각도기)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서울은 서운관(->관상감)에, 지방은 각 도와 군현의 객사정에 설치하고 수령이 직접 강우량을 측정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역법(달력)으로는 정흠지, 정초, 정인지 등에 의해 편찬된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칠정산 외편)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칠정산 내편).

인쇄 기술도 더욱 발전하여 금속활자로 태종대의 계미자(1403)를 이어 경자자(1420)를 만들었고, 종전의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대체하여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갑인자, 1434).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② 조선 선조 대의 과학자 이장손은 균기시에 소속된 화포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기인 비격진천뢰를 제작하여 왜적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다.

③ 조선 후기 정조 대에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④ 조선 후기 영조 대에 정상기(1678~1752)는 100리척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1740).

⑤ 19세기 말 고종 대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20.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답사 안내 자료집)

(가) 이/가 묻힌 광릉을 가다



◎ 광릉 이야기

한명회, 권람 등과 함께 변란을 일으킨 후 왕위에 오른 (가) 은/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등 왕권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덤에 석실과 석곽을 마련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에 따라 내부는 석화다짐으로 막았고, 봉분 둘레에도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다. 이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후대 왕릉 축조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 ①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 ②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③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 ④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었다.
- ⑤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였다.

정답: ⑤

* 조선 세조의 업적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곧,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이 넘어가자, 수양대군(세조)은 한명회(1415~1487, 호-압구정), 권람(1416~1465) 등과 함께 정변(계유정난, 1453)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다.

세조(1455~1468)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치 체제를 다시 6조 직계제로 고쳤으며, 자신의 활동을 견제하는 집현전을 없앴다. 그리고 경연도 열지 않았으며, 태종 이후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던 종친들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과전법이 수신전, 흠양전 등으로 토지가 세습되어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국방 강화책으로 5위, 진관체제, 보법(保法) 등을 실시하였고, 인지의(규형)를 통한 토지 측량, 상평창 제도의 부활 등의 제도 정비, 경국대전외의 착수(호전, 형전)와, 문종 실록, 사시찬요, 정관정요주 등의 편찬 사업 업적이 있었으며 간경도감(불경 언해) 설치, 원각사와 원각사 10층 석탑의 건립 등 불교 진흥도 있었다.

사후의 능인 광릉(남양주 진접 소재)은 다른 왕릉에 비해 부지는 매우 넓으면서도 간소하게 조성되었다

① 세종 때에 여진족을 압록강과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4군(최윤덕, 1443)과 6진(김종서, 1449)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② 흥선 대원군은 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1785) 이후의 법령을 추가하여 조선왕조 최후의 법전인 대전회통(1865)을 편찬하였다.

③ 광해군(1608~1623) 때에 일본 대마도주와 기유약조(1609)를 체결하여 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의 범위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④ 영조(1724~1776)는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는 균역법을 제정하였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기존에 1년에 군포를 2필 부담하던 것을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21.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가) 출신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 행적기로, 위항 문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은/는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詩社)를 조직하는 등의 문예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책의 서문에는 이항(里巷)에 문혀 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항: 마을의 거리

- 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 ②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 ③ 공장안에 등록되어 수공업 제품 생산을 담당하였다.
- ④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 ⑤ 관직 진출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⑤

* 중인 계층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과 서얼)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의.역.울.산).

기술적인 좁은 의미의 중인들은 주관적으로는 사족(士族)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양반과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조선 후기에는 독특한 시문인 위항문학(委巷文學)을 바탕으로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서얼)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상소하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였다(소청 운동).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정유서얼허통절목, 1777), 더 나아가 1851(철종 2년) 신해통공 조치로 사관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얼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1851년 대대적인 연합 상소 운동을 벌였으나, 그 세력이 미미하여 실패하였다.

①, ② 천인인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에 관한 문제(문서, 소송)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은 장예원이다.

③ 조선의 수공업들은 양인 신분이지만 공장안(工匠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

④ 고려, 조선에서는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조선에서는 칠반천역이 있는데,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하는 일급 부류이다.

22.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1점]

특별 전시

겸재 특별전

우리 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겸재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
• 장소: △△미술관

- ① 
- ② 
- ③ 
- ④ 
- ⑤ 

정답: ①

*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겸재 정선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겸재 정선(1676~1759)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1751)와 금강전도(1734)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 ① 인왕제색도(정선)
- ② 영통동구도(강세황, 서양식 원근법 사용)
- ③ 몽유도원도(안견)
- ④ 세한도(추사 김정희)
- ⑤ 고사관수도(강희안)

2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영조가 세손을 데리고 (가)에 거동하여 해당 관원들에게 내린 사언시입니다. 집현전을 계승한 이 기구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옥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 ②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 ③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 ④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벌하였다.

정답: ④

* 홍문관에 대하여

조선의 중앙 관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정승의 재상 등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의 정부는 중국의 최고 관부인 3성 6부와는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최고 관부로서, 고려 말의 도평의사사를 개편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실권은 약화되었다.

이.호.예.병.형.공조로 구성된 6조 중 문관과 무관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의 전랑(정5품)과 좌랑(정6품)의 전랑(銓郎)은 벼슬은 낮지만 인사권을 갖는 선망의 요직이고, 특히 이조 전랑은 후임자 자천권도 있어 훗날 봉당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6조 아래에는 여러 관청이 소속되어 업무를 나누어 맡음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의정부와 6조의 고관이 중요 정책 회의에 참여하거나 경연에서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각 관서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사헌부(주로 백관 규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장관:대사헌) 사간원(주로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 장관:대사간), 홍문관(일명 옥당, 집현전 계승,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헌(文翰)의 처리, 장관:대제학)의 3사는 전곡과 회계를 담당하는 고려의 삼사와는 달리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臺諫)이라 불렸는데, 임명된 관리의 신분·경력 등을 심의·승인하는 서경, 왕께 간언을 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 왕명에 의해 국가의 큰 죄인이나 강상죄를 다스리는 의금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24.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금속 화폐인 권원중보가 주조되었다.
- ②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③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 ④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
- ⑤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정답: ①

* 전기수가 활동하던 조선 후기의 경제상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크게 증가하여 향유층이 확대되어 점차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때에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전기수(傳奇叟)가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앙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이용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광작).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또한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추, 고구마, 감자 등도 전래되어 구황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유통 경제가 발달하자 지방 장시나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보부상들은 장날이 순환하는 것에 따라 장사를 하면서 각 장시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공인(대동법 실시에 따라 관수품을 조달하는 상인)과 사상(私商)들이 상업의 발달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할 수도 있었다.

18세기 이후 송상, 경강 상인 등의 사상(私商)들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송상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대외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의주의 만상은 대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경강 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써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숙종 때에 허적 등의 건의로 주조된 상평통보(1678)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①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권원중보(996)를 만들어졌다.

25.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며칠 전 역적의 입을 통해 김제남과 함께 영창 대군을 옹립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창 대군이 비록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사오니, 법대로 처리하게 하소서

- ①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②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 ③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정답: ①

* 인조 반정(1623)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재위: 1608~1623)은 전쟁의 뒷수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1608).

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고,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1610)을 편찬하게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그러나 광해군과 복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폐모살제)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펴 도덕적으로 큰 약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를 빌미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킴으로써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623).

② 명종 즉위 직후 명종의 외척인 소윤(윤원로, 윤원형 일파)과 인종의 외척인 대윤(윤임 일파)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을사사화(1545)가 발발하였다. 이 때 양편 모두에 사람이 연루되어 큰 희생을 입었다.

③ 연산군 때에 조의제문 사초 문제로 첫 사화(士禍)인 무오사화가 발생하였다(1498).

④ 선조 대에 기축옥사(1589~1591) 즉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연루된 동인이 서인 정철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호남 동인 몰락).

⑤ 선조 대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1575).

2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근래 변방 일을 위해 (가) 을/를 설치했고,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 혹 병조 판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지엽적인 입장이 되어버렸고, 참판 이하의 당상관은 전혀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청컨대 혁파하소서.

< 보 기 >

- ㄱ.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 ㄴ. 임진왜란 이후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 ㄷ.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 ㄹ.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의 세력 기반이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비변사에 대하여

중종 때의 3포왜란(1510, 지변사재상 소집)과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 상설기구화)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나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1517년 설치, 1555년 정식 관청).

비변사는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차 상설화 되고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전·현 의정,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대제학, 5군영 대장, 4도 유수),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의 제반 사무를 소수의 당상들이 회의하여 결정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세도정치기에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외척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고종 때에 흥선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후 3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1865).

㉠ 조선의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은 승정원이다

㉡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인 소격서는 조선 중종 대 사림의 중심 인물 조광조(1482~1519) 등의 건의로 한 때 혁파되기도 하였다.

27. 밑줄 그은 '소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금번 진주의 난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스러워 백성을 침학했기 때문입니다.
경상 우병영의 환곡 결손[還逋] 및 도결[都結]에 대해 시기를
틈타 한꺼번에 6만 냥의 돈을 가호[家戶]에 배정하여 억지로
부과하려고 하니, 민심이 크게 들끓고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전에 듣지 못했던 소란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도결: 각종 명목의 조세를 토지에 부과하여 징수함

1510	1597	1680	1728	1811	1894
(가)	(나)	(다)	(라)	(마)	
삼포 왜란	정유재란 발발	경신 환국	이인좌의 난	홍경래의 난	동학 농민 운동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 진주 민란(1862)

세도정치(1800~1863) 하 농민봉기는 철종 때에 가장 심하여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확대 되었다(1862년 임술농민봉기).

이 때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과 향리들의 수탈(엄청난 환곡 전횡)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이 시기의 농민봉기는 대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그 규모나 양상도 비슷하였다. 즉, 전정, 환곡, 군포 등 삼정과 결세(結稅), 각종 잡세 등과 관계된 내용이 중심이고, 특히 환곡의 폐단이 심하였다. 처음에는 관청에 호소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봉기한 것이다.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어 이 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과 전정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 폐되고, 그 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었다.

2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정묘년 때 맹약을 잠시라도 지켜서 몇 년이나 화(禍)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며 성을 쌓고 군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또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계획일 것입니다.

- 「지천집」 -

(나) 오라총관 목극등이…… 국경을 정하기 위하여 백두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접반사 박권, 함경도 순찰사 이선부, 역관 김경문 등을 보내어 응접하게 하였다.…… 목극등이 중천(中泉)의 물줄기가 나뉘는 위치에 앉아서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곳에 경계를 정하고 돌을 깎아서 비를 세웠다.

- 「만기요람」 -

- ① 조총 부대가 파견되어 러시아 군대와 교전하였다.
- ② 명의 요청에 따라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파병되었다.
- ③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이괄이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 ④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항전하였다.
- ⑤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정답: ①

* 정묘호란(1627) 강화 ~ 백두산 정계비 건립(1712) 사이의 역사적 사실

광해군(1608~1623)은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 외교를 펼쳤다(1619).

인조반정(1623)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또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평안도에 주둔하였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1624)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자,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피신하여 조선 침입을 종용하자,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1627, 정묘호란).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형제관계의 화의와 조공과 국경에서의 관무역을 조건으로 철군하였다.

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군신 관계를 맺자며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병자호란, 1636).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으나, 청과 싸우자는 주전파(김상헌과 윤집, 오달제, 홍익한-삼학사)와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지천, 최명길)의 논쟁 속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3배 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짚음)를 맺었다.

이후 효종(1649~1659) 때에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의식이 대두되어 북벌 운동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러시아가 흑룡강쪽으로 청을 침공해 오자, 청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으나(나선정벌), 청의 국력이 절정에 달하여 북벌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숙종(1674~1720) 초에도 윤희를 중심으로 북벌이 제기되었으나 정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국경 경계로 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1712).

- ① 임진왜란 중인 1593년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29.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이달의 문화 인물 ◆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 초정(楚亭) 선생

초정 선생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문인회풍의 산수화와 생동감이 넘치는 꿩, 물고기 그림 등을 잘 그렸다. 그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조선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초정이 그린 꿩 그림, 야치도

- ①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②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 ③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되어 활동하였다.
- ④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 ⑤ 우서를 통해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정답: ③

*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

18세기 후반,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과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는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가 등장하였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는 18세기 전반의 유수원(1694~1755)이었다. 그는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홍대용(1731~1783)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의 혁신과 문벌 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박지원(1737~1805)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전, 허생전 등의 소설을 통해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도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박지원의 실학 사상은 그의 제자 박제가(1750~1805)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그는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으며,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김정희(1786~1856)는 청에 가서 고증학의 대가인 옹방강, 완원 등과 교류하고 돌아와 시·서·화를 일치시킨 고답적인 이념미를 구현코자 하였으며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④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 광우록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신문

제△△호 ○○○○년○○월○○일

서울시, 양헌수 장군 문집과 일기 등 유형문화재 지정

서울시는 □(가) 때 정족산성 전투를 지휘한 양헌수 장군의 문집인 하거집과 일기 등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가)은/는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으로, 양헌수 장군은 정족산성에서 이를 물리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거집
양헌수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남긴 글들을 모은 책

- <보기> —
- ㄱ.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 ㄴ.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ㄷ.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결사 항전하였다.
 - ㄹ. 조선 정부의 프랑스 선교사 처형이 구실이 되어 일어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병인양요(1866)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 실패하자, 1866년부터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가하여,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병인박해).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이끌고 강화도로 침공하였다(병인양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교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이에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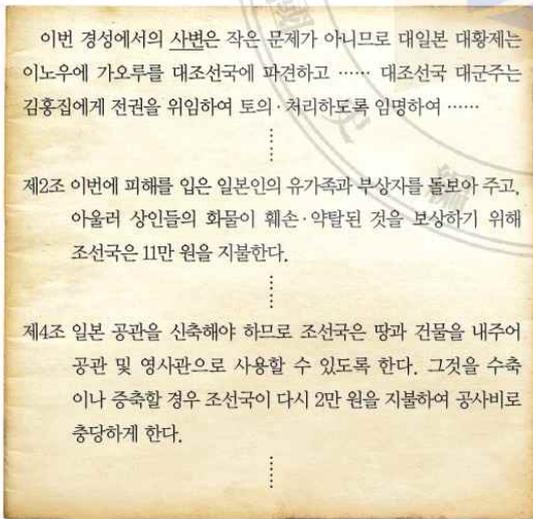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이를 빌미로 강화도에 침입하였는데,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6). 이 때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 1897년 러시아는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절영도 저탄소 조차를 시도하였으나, 1898년 3월부터 진행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31. 밑줄 그은 '사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②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 ③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 ④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 ⑤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정답: ⑤

* 갑신정변의 결과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고, 1884년 12월 흥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법령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고,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변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으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1885)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은 갑신정변 직후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내 이홍장과 담판하여,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알린다는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4).

①, ②, ④ 개항 직후인 1876년 일본에 수신사로 김기수를 파견하여 일본의 개화 실정을 살펴보게 하였고, 개화정책 추진기구로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였으며, 신식 군대로 별기군(1881)을 신설하였다.

③ 2차 수신사(1880)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국내에 소개한 <조선책략>에 대한 반발로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만인소를 올렸다(1881).

32.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된 과정을 정리한다.
- ②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한 목적을 살펴본다.
- ③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를 찾아본다.
- ④ 임오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조사한다.
- ⑤ 구(舊) 백동화가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된 시기를 검색한다.

정답: ④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의 결과

임오군란(1882.6) 진압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를 강화하였다.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인근 한강인 양화진(楊花津)과 한성(서울)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성의 시전상인과 개항장의 객주 및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는 보부상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① 1908년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일본의 국책 회사였다.

② 1920년 일본 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고자 조선 총독부는 회사 설립 허가제인 회사령을 철폐하고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③ 을미사변(1895.10, 일본의 민비 시해 사건)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 피신하였다(아관 파천, 1896.2~1897.2).

⑤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정리사업(1905~1909)은 조선의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그 결과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3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본 덕원부는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개항지입니다. 이곳을 빈틈없이 미리 대비하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있고, 그 핵심은 가르치고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사(元山社)에 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나) 경인 철도 회사에서 어제 개업 예식을 거행하는데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오르더라. 수레를 각기 방 한 칸씩 되게 만들어 여러 수레를 철구로 연결하여 수미상접하게 이었는데, 수레 속은 상·중·하 3등으로 수장하여 그안에 배포한 것과 그 밖에 치장한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더라.

- ① 전신선을 가설하는 인부
- ② 이화 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 ③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④ 한성 전기 회사 창립을 협의하는 관리
- ⑤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읽고 있는 교사

정답: ⑤

* 1883~1899년 사이의 근대문물 역사

(가) 개항 후 함경도 덕원에서는 관민이 합동하여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1883)를 세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1896년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얻어, 1897년 3월 인천에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후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인철도회사가 부설권을 인수하여 1899년 4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 그 해 9월 제물포(인천)~노량진 사이 구간을 개통하였다.

① 1885년 서울-인천 간의 전신이 설치되고, 이후 의주와 부산을 거쳐 청과 일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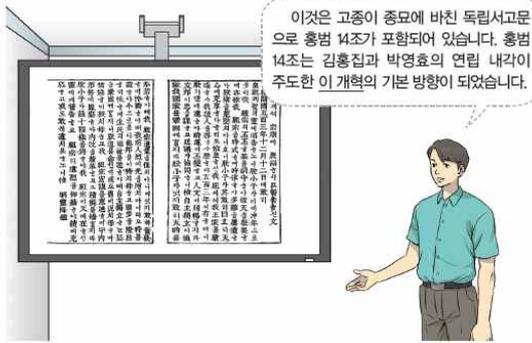
② 최초의 근대식 여성 사립학교 이화학당은 미국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세웠다(1886).

③ 서양 의학이 보급되면서 근대 의료 시설인 광혜원(1885년 1월 설립, 동년 3월 제중원으로 개칭, 1904년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을 비롯하여 많은 병원이 들어섰다

④ 1898년 1월에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과의 합작으로 세워진 한성 전기 회사는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과 전차를 가설하였다. 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최초로 운행하였다(1899.5).

⑤ 대한매일신보(1904~1910)는 1904년 2월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창간되었으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항일의병 보도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항일언론이었다

34. 밑줄 그은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상회사인 대동 상회, 장통 상회를 설립하였다.
- ③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 ④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 도입을 위하여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 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한성 사범 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

정답: ⑤

* 2차 갑오개혁(1894. 7~12)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다. 일본은 흥선 대원군을 은퇴시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출범하여 제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내정 개혁 및 자주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 서고문을 바치는 한편,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8아문->7부), 지방제도 개편(8도->23부, 337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 조서 반포(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①, ③ 광무개혁(1897~1904) 때에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였고,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물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② 개항(1876) 후 개항장의 객주를 비롯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은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동업자를 모아 상회사를 세우기 시작하여 1883년부터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이 설립되었다

④ 개항 후 통리기무아문은 일본에 박정양 등의 조사시찰단을 보낸 후, 영선사로 김윤식을 청나라에 보냈다. 그는 38명의 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텐진 기기국에 가서 서양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1881). 하지만 학생들의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35.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역사 다큐멘터리 기획전)

(가) , 근대적 자주 독립 국가를 꿈꾸다

■ 기획 의도
자주 독립 국가를 목표로 창립된 (가) 의 활동을 3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 회차별 방송 내용

- 1회. 만민 공동회를 통한 자주 국권 운동 전개
- 2회. 관민 공동회를 통한 헌의 6조 결의
- 3회. 황국 협회의 습격과 단체의 해산

- 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 ③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④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계몽 서적을 보급하였다.
- ⑤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정답: ③

* 독립협회(1896.7~1898.12)

아관 파천(1896.2)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갑신정변(1884)의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은 중추원 고문으로 독립협회(1896.7)를 설립하고,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1896~1897) 자주독립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자강개혁). 또,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이권 수호), 자유 민권(신체의 자유, 의회 설립과 국민참정권 추진)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1898.10)를 결의하고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1898.11).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공화제 모함). 독립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보부상 단체 황국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1898.12).

- ① 애국계몽운동단체 대한자강회(1906.4)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되었다(1907.8).
- ②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 ④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1911)는 산업진흥을 위해 평양의 자기회사를 계몽서적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료편찬소를 설치하고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였으며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3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

아랍의 역사 인물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장
왕산 허위(1854~1908)

경상북도 구미에서 출생하였다. 성균관 박사, 평리원 재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일 신협약 체결과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된 (가)에서 군사장을 맡았다. (가)은/는 각지의 유생 의병장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의병 부대로 총 병력이 1만 여명에 이르렀으며, 총대장에는 대한관동창의대장 이인영을 추대하였다. 군사장 허위는 경기도 양평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 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② 독립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 ③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하였다.
- ④ 양주에 집결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정답: ④

*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 작전

1907년 7월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정부의 차관과 각 도의 지방관에 일본인을 등용하였으며, 부속 각서를 통해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의 항전은 더욱 강렬하게 불붙었다. 서울 시위대를 비롯한 각지의 해산 부대들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후 의병에 가담하였다. 해산 군인의 합류로 의병 부대는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병들의 국권 회복 투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정미 의병).

정미 의병은 유생과 농민, 해산 군인뿐 아니라 노동자, 상인, 교사와 학생 등 전 계층이 참여한 전국적인 항일 구국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의병 전쟁이 확산되자 의병 간에 연합 전선이 모색되었다. 이에 유생 의병장들이 중심이 되어 13도 연합 의병 부대(13도 창의군)를 결성하였다.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1만여 명의 의병은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추대하고 1908년 1월, 서울 진공 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총대장 이인영이 아버지의 별세로 낙향하며 지휘권을 군사장 허위에게 양도하였고, 한때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가 동대문 밖 12km 지점까지 진격했으나 우세한 화력을 지닌 일본군에 의해 가로막히고 실패하였다.

① 흥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1920년 6월 봉오동에서 일본군 다수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50여명 사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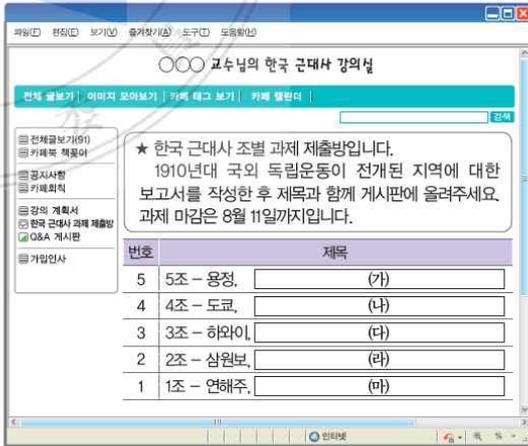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애국 공채(독립공채)를 발행하고, 국민 의연금을 통해서이다.

③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1895~1896)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였다.

⑤ 임병찬이 1912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으고,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며 대한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복벽주의를 추구하다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6).

37.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다
- ② (나) -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에 힘쓰다
- ③ (다) -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다
- ④ (라) -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다
- ⑤ (마) -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다

정답: ⑤

* 해외 독립기지들의 역사

(가) **북간도**: 19세기 후반 이후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이주한 간도지역에서 동포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벼농사를 지었다. 북간도의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와 서전서숙(이상설), 명동학교(김약연) 등 민족 학교를 세워졌다. 특히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종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나) **일본**: 주로 노동자나 유학생들이 건너갔고, 1919년 일선의 '민족 자결론'에 고무된 조선 청년 독립단(최팔용, 백관수 등)은 2·8 독립 선언을 선포하여 국내의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는 조 작된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학살을 당하였다.

(다) **미주**: 1902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지역의 교민들은 학교와 교회 등을 세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1910) 등의 자치 단체를 만들어 한인 사회를 발전시켰다.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주 교민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가장 큰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라) **서간도**: 신민회 회원들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마) **연해주**: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으며, 러시아혁명(1917) 직후 전로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태의 대한국민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중일 전쟁 직후인 1937년에는 일본군의 연해주 침략 빌미를 제공치 않기 위한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수많은 교민들이 강제이주 당하였다.

38. (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에 대한 반대 측 의견을 종합하건대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일본인 측이나 또는 관청의 일부분에서 일종의 일본 제품 배척 운동으로 간주하고 불온한 사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위 사회주의자 중 일부 논객이 주장하는 것인데, (가)은/는 유산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무산 계급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유산 계급만의 운동으로 남겨 버리자는 것이다. - 동아일보 -

- ① 조선 노동 총동맹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 ②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국민의 성금을 모아 국채를 갚고자 하였다.
- ④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 ⑤ 농민 단체를 결성하여 소작 쟁의를 전개하였다.

정답: ④

*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1920년 회사령 폐지와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 8월부터 조만식 등이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평양에서 조선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이듬해 서울로 확산되어 1923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였고,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와 실력양성을 도모하는 조선청년연합회, 여성단체인 토산애용부 인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전개된 청년 단체들의 금주 단연 운동, 자작자급 운동, 소비 절약 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민족 자본은 물산장려 운동으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토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세민의 생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켰다. 또한 물산장려 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①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노동 총동맹(1924)은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② 1920년대에 백정들은 일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운동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단체들이 참여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고통당하던 소작농민들은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소작료 인하와 소작지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소작 쟁의를 벌였다.

39. 다음 잡지가 발간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방정환이 이끈 천도교 소년회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를 신조로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동 문학과 이야기, 그림, 교양 지식, 독자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도교는 어린 아이를 한울님처럼 대하라는 제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아 소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① 박은식 등이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였다.
- ② 안국선이 신소설 금수회의록을 집필하였다.
- ③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되었다.
- ④ 국내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건립되었다.
- ⑤ 주시경이 국문 연구소를 세워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정답: ③

* 잡지 어린이(1923~1934)가 발간되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

일찍이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아 천도교에서는 소년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김기전(‘개벽’ 주필), 방정환(손병희 사위, 아동작가), 이정호(아동작가)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1921)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소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인 조선 소년 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일제는 소년 운동을 애국 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했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시켰다.

① 최남선과 박은식 등은 1910년 10월 ‘조선광문회’(1910)를 조직하여 역사, 한글, 지리에 관한 여러 고전의 보존과 간행을 주도하였다.

② 신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1908년에 발표되었다.

③ 나운규(1902~1937)는 1926년 민족의 비애를 담은 영화 ‘아리랑’을 발표 하였다.

④ 1908년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 운동이 시작되었다.

⑤ 1907년 학부 안에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지석영(1855~1935), 주시경(1876~1914)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 하였다.

40.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안동에 있는 '항일구국열사 권오설 선생 기적비'이다. 권오설은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 인물로서, 순종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천도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한 이 운동을 기획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그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5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①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 ③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를 구호로 내세웠다.

정답: ④

* 6.10 만세운동(1926)

3.1 운동(1919) 이후 192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가 국내에 본격화되고 학생들의 의식이 커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자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6·10 만세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민중이 실천해야 할 경제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① 일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천황 통치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였다. 이는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② 1920년대에 백정들은 일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3·1 운동은 각계각층의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강압적인 무단통치에서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⑤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41.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제1조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이수와·체력과·예능과 및 직업과로 한다.

제2조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의하여 교육의 전반에 걸쳐 황국의 도를 수련하게 하고 특히 국체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여 황국 신민이라는 자각에 철저히 하도록 힘써야 한다.

14. 수업 용어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 ② 헌병 경찰에게 태형을 당하는 상인
- ③ 신간회 창립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
-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
- ⑤ 여자 정신 근로령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여성

정답: ⑤

* 국민학교 규정 칙령 제정(1941.4)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는 1941년 4월 천황 칙령에 따라 초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① 일본인 기업의 착취에 저항하여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노동쟁의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 1~4월에 일어났다

② 1912년 일제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조선 태형령(1912~1920)을 시행하였다.

③ 1920년대 중반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상재, 안재홍 등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완전독립론)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협동 전선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신간회를 창립하였다(1927. 2)

④ 한일 학생간의 충돌 사건을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처리하여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1929.11)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듬해 3월까지 지속되었다.

⑤ 일제는 1944년 8월 '여자 정신 근로령'을 제정하여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4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학술 대회 안내 ※

우리 학회는 일제의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한국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주체성을 탐구한 민족 운동인 (가)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 발표 주제 ◆

- 정인보의 조선 양명학 연구와 열 사상
- 안재홍의 조선학과 신민족주의론
- 문일평의 조선학론과 역사 대중화

- 일시: 2018년 ○○월 ○○일 13:00~17:00
- 장소: □□대학교 대강당
- 주최: △△학회

- ①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여유당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 ③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 ④ 모금 활동을 통한 민립 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였다.
- ⑤ 오산 학교와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②

* 조선학 운동

조선 '얼'을 강조한 정인보와 조선 '심'을 강조한 문일평과 신민족주의를 제창한 안재홍 등 일본의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협조를 거부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조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가가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① 192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적극 비판하는 프로 문학(신경향파)이 등장하여 박영희, 김기진 등이 카프(KAPE)를 결성하였다(1925).

③ 일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1916), 식민주의 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를 편찬하여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다.

④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민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상재 등은 1922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고, '일천만이 일원씩'라는 구호와 함께 모금을 추진하였다.

⑤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1911)는 안창호가 대성학교(1908), 이승훈이 오산학교(1907)를 세우며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4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가)의 총사령인 양세봉(양세봉) 장군의 흉상으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모금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양세봉 장군은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습니다.

- ①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②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 ③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⑤ 흥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정답: ①

* 양세봉과 조선혁명군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1932)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대 말 전개된 참의부·정의부·신민부 등 3부 통합 운동의 결과로 조선 혁명당과 한국 독립당이 결성되었고, 그 산하에 조선 혁명군(1929)과 한국 독립군(1930)이 편성되었다. 두 독립군 부대는 일제의 만주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항일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여러 차례 일본군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요녕민중자위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북만주 중동철도를 중심으로 중국군(길림자위군, 호로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중국군과의 전리품 문제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1933년 말,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②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1941.12)를 한 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③ 간도참변 이후 소련의 지원을 믿고 제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단(1920.12, 총재 서일)을 결성하여 극동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는 자유시 참변을 당하며(1921.6),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④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인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이다(1938.10)

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흥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 부대가 일제에 대한 청산리 대첩을 이루어냈다(1920.10)

44.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인보

- 1918년 평안북도 의주 출생
- 1942년 도쿄 일본신학교 재학
- 1944년 학병 강제 징집
- 1947년 조선 민족 청년단 활동
- 1953년 사상계 창간 주도
- 1962년 막사이사이상(賞) 수상
-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
- 1973년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명 서명 운동 주도
- 1975년 사망
- 1991년 건국 훈장 애국장 추서



- 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기초하였다.
- ② 한국광복군의 일원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③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 ④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답: ②

* 장준하(1918~1975)에 대하여

임정 산하의 한국 광복군은 1945년 3월 미국 전략 사무국(O.S.S.)과 공동 작전을 합의하였다. 일본군 학도병 출신 광복군(김준엽,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특수 공작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국내에 투입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현지 저항 세력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일제가 예상보다 일찍 항복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준하는 해방 이후 잡지 ‘사상계’를 간행하였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 활발하게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투옥되었으며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중 1975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실족사로 사망했다.

① 조소앙(1887~1958)은 개인, 민족, 국가 사이의 완전한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주의 이념을 추구하였고 1941년 임정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채택·수록되었다.

③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836)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④ 여운형(1886~1947)은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건국을 준비하였다.

⑤ 1919년 의열단을 조직했던 김원봉(1898~1958)은 암살이나 파괴만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1925년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원을 황푸군관 학교에 입교시키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간부를 양성하였다(1932).

45.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 무상 원조에 대해 한국 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는 조건으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2. 유상 원조(해외 경제 협력 기금)에 대해 한국 측은 2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1억 달러를 주장한 바 2억 달러를 10년 간에 걸쳐 이자율 3.5%로 제공하기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3. 수출입 은행 차관에 대해 한국 측은 별개 취급을 희망하고 일본 측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양측 합의에 따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할 것을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②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③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 ④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었다.
-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하여 귀속 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②

* 김종필-오히라 각서 작성 이후의 역사적 사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 간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소위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청구권 문제의 해결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① 제헌국회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1948.9), 반민특위(1949. 1~8)가 활동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③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진보당과 당수 조봉암을 구속, 해체(1958.1)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 조봉암을 전격 처형하였다(1959.7)

④ 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1957년 문경에 대한양회 문경공장이 준공되었다.

⑤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1949.12)을 제정하여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민간인 연고자에 분배하였다.

46.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 조치는 …… 격동하는 세계 경제의 충격에 따른 국민 경제의 위기를 국민의 총화적 참여에 의하여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석유류세 세율의 특례) 휘발유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법에 의한 석유류세의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1조 (취득세 세율의 특례) ①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승용차, 비업무용 고급 선박 또는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 ①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②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하였다.
- ③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 ④ 남북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성 공단이 건설되었다.
- ⑤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②

* 긴급조치를 실시한 박정희 유신 정부 시기 (1972.10~1979.10)의 역사적 사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1호(1974.1)에서 9호(1975.5)까지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이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일어나자, 여당과 정부는 야당 당수인 김영삼을 국회 제명하였다. 이는 동년 10월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의 반유신 투쟁(부마 항쟁)을 야기하고, 집권층 내에서의 강한 진압 대립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①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2007)에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체결되었으나, 재협상 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되었다(2012).

③ 이승만 정부 때에 농지개혁법(1949.6)이 제정되어 경자유전 원칙으로 하여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④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2000)의 후속조치로 개성공단 건설이 되었으나(2004년 입주), 남북관계 악화로 박근혜 정부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⑤ 김영삼 정부 때에 경제의 투명화를 위해 금융실명제(1993)를 전격 실시하였다.

47. (가)~(라)의 헌법을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재임 한다.
 ③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나)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라)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라) - (가) - (다)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①

*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정(1948년, 임기 4년의 대통령 국회 간선제 선출) 이후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독재를 위하여 1952년 발췌개헌(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 폐지)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참의원, 민의원)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1960: 3차 개헌).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고, 동년 11월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4차 개헌).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정 때인 1962년, 다시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되돌아가(5차 개헌),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유신 헌법(7차 개헌, 임기 6년과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의 간선제와 마강한 권한 부여)으로 개정하여 장기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붕괴하며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화가 오는 듯했으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로 선출하는 헌법을 개정하였고(1980: 8차 개헌, 5공 헌법),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1987: 9차 개헌, 현행 헌법).

48.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답사 계획서

◆ 주제: (가) 의 근·현대 유적과 역사를 찾아서
 ◆ 일시: 2018년 ○○월 ○○일 09:00~17:00
 ◆ 경로: 짜장면 박물관 → 구(舊) 조선 은행 지점 → 제물포 구락부 → 맥아더 장군 동상 → 바라그호 추모비

- ① 개항 이후 조계가 설정되었다.
-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③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왜관이 설치되었다.
- ④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⑤ 영국군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 점령하였다.

정답: ①

* 인천의 근·현대 역사

인천은 근·현대에 이르러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인천의 문호가 개방되고, 뒤이어 일어난 제물포조약의 결과 1883년(고종 20) 1월에는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이에 앞서 1882년 인천에 일본영사관 가청사가 설치되어 최초의 영사가 임명되었으며, 개항 후에는 거류지약서가 조인되어 1888년(고종 25)까지에는 각국의 거류지(조계)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거류지였다.

또한 각종 근대 시설들이 인천에 들어섰다. 특히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서울-인천)이 1899년에 개통되었다.

6.25 전쟁 당시에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의 대규모 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이 이루어져 전세가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3~5)가 개최되었다

③ 조선 초기 세종 때에는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에 왜관을 설치하였으나(1426), 조선 후기에는 1607년 국교가 재개된 이후 부산(두모포->초량)의 왜관에서만 교역을 허락하였다.

④ 1920년 노인단 소속의 강우규는 6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 돌 불구하고 서울 남대문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살해에는 실패하였으나 많은 일본인들을 살상하였다(37명).

⑤ 갑신정변 후 영국은 조려밀약설에 위협을 느끼고,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 불법점령하였다(1885~1887)

49.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①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②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 ③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 ④ 양원제 국회와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하여 장기 독재에 저항하였다.

정답: ④

* 4.19 혁명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3.15 부정 선거),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3.15 마산 시위, 김주열 사망)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경무대 앞 시민·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130여명 사망).

4월 25일에는 서울 시내의 대학교수단이 대

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하였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4월 26일 이승만은 결국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이승만 정부는 붕괴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구성된 허정 과도 정부(1960. 4.27~ 8.12)는 부정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15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1960.8.12.).

① 전두환 정부의 1987년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는 6월 민주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

②, ③ 1980년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결국 수백 명이 희생되며 진압되었다.

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 교수 등은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구국 선언(1976)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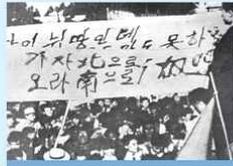
50. (가)~(라)의 사진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사진으로 보는 통일 노력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가)



남북 학생 회담 요구 집회

(나)



10·4 남북공동선언 채택

(다)



정주영 북한 방문

(라)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라) - (가) - (다)
-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③

* 통일을 위한 노력의 연대기

1960년대 들어서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평화 통일 운동이 4.19 시민혁명으로 들어선 장면 정부하에서 분출하였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961.5).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을 열리며, 서울과 평양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내세운 7·4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발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하라인) 개설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에는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1985. 9.), 1990년 전후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는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이 추진되어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1991.12).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1994.10)가 채택되었고,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1995년 3월부터 추진되었으나 현재 중단).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실현되었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이후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적극적인 대북 협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이명박 정권 이후 상호주의 기조 아래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